

출발은 KIA ... 지구력이 부족했다

반환점 돈 타이거즈

거창했던 출발, 미흡했던 마무리였다. KIA는 개막 6연승을 달리며 기분 좋은 출발을 했다. 이후 난적 NC와 삼성에게 5연패를 당했지만 '5할 승률'을 맹돌면서 기대 이상의 선전을 했다. 그러나 막판 스퍼트가 없었다. 마지막 총력전을 예고했던 원정 8연전을 1승7패로 끝나며 뜨거웠던 초반과 달리 전반기를 쓸쓸하게 마무리했다.

◇끝내기의 추억

'뒀심 싸움'에 웃고 울었다. 침묵의 공격이었지만 해결사가 등장하면서 초반 5할 싸움이 이뤄졌다. 외국인 선수 필이 역시 확실한 해결사였다. 3월29일 LG전에서 끝내기 홈런(사진)을 날린 필은 4월23일 롯데전에서는 만루홈런으로 흐름을 되돌렸다. 그리고 이 경기는 이흥구의 끝내기 몸에 맞는 볼이라는 보기 드문 장면으로 끝났다. 5월17일에도 필은 끝내기 안타의 주인공이 되어 그라운

개막 6연승·막판 KT에 스윙패 5할 승률 실패

임준혁 재발견...새내기 김호령·박정수 활약 위안

김기태 감독 "방망이 불 붙여 하반기 준비하겠다"

드를 달렸다. 김민우의 끝내기도 빼놓을 수 없다. 5월13일 kt전. 마무리 윤석민까지 무너지면서 패색이 짙던 10회말, 김민우의 역전 끝내기 스리런이 나오면서 챔피언스필드가 불타올랐다.

짜릿했던 끝내기의 추억. 그러나 급격한 하락세에도 '썸' 끝내기의 추억이 있다.

김기태 감독도 올 시즌 아쉬운 장면으로 꼽기도 한 지난 8일 넥센 원정. 신인 박정수가 자신의 첫 선발등판에서 5이닝 2실점으로 넥센 강타자들을 돌려세웠지만 아쉬운 내야의 수비 속 윤석민의 불론 세이브가 나오면서 승부는 12회까지 갔다. 결국 결정타가 없던 KIA는 쓴 패배를 당했고, kt전 싹쓸이 패배의 여파까지 더해 KIA의 승률이 추락했다.

◇새로운 얼굴, 새로운 스타

올 시즌에도 새로운 얼굴, 새로운 스타가 등장했다. 전반기 막바지 고졸 루키 사이드암 박정수가 뜨거운 이름이 됐다. 아이돌 스타 뺀지는 외모의 박정수는 외모와는 다른 공격적인 피칭과 위력적인 변화구로 전반기 파날레를 장식했다.

13년차 임준혁의 재발견도 빼놓을 수 없다. 초반 부상으로 캠프 MVP의 기세를 잊지 못했지만 전반기 막바지 위기의 마운드를 지켰다. 기복 많은 타선에서 그나마 필이 '모범생'의 역할을 담당한 가운데 빠른 발로 무장한 김호령은 외야에 새로운 별이 됐다. 적극적인 주루와 안정되고 폭 넓은 수비로 미래의 스타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마른 타격 고민

KIA 선수단은 17일부터 하루 휴식, 하루 훈련의 패턴으로 후반기를 준비한다. 재정비의 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타격 불붙어준다. 전반기 내내 속을 썩인 나치완이 그나마 만전의 계기를 마련하며 숨을 돌렸다. 개막 직전 우측 견갑골 부상으로 호흡이 썩인 신종길과 내야의 키를 쥐고 있는 강한울의 변신이 필요하다.

공·수·주에서 모두 역할이 필요한 강한울은 "전반기에 팀에서 어린 선수로서 활력을 불어넣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후반기는 아쉬움이 없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김기태 감독은 "재미있는 일도 많았고, 역전승도 있었고 오랜 시간 5할 승부를 했었다. 마지막에 아쉬움은 있었지만 선수들 최선을 다해줬다. 올스타브레이크 기간 잘 정비해서 남은 시즌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소감을 밝혔다.

/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별' 보러 가요



프로야구 올스타전 오늘·내일 수원·프로축구 오늘 안산서

KIA 양현종·김주찬...감독 추천 윤석민·이흥구 축제 합류

'별들의 잔치'로 그라운드가 뜨겁게 달아오른다.

프로야구의 별들이 17·18일 수원 케이티위즈파크에 모여 올스타전을 치른다. K리그의 스타들은 17일 안산와 스타다움에서 흥겨운 축제의 한마당을 벌인다.

2015 KBO 올스타전이 18일 막내팀 kt의 방방인 수원 케이티위즈파크에서 열린다. 올 시즌 kt의 참여로 10구단 체제가 되면서 새로 팀이 나누어졌다. 10개 구단은 드림 올스타(삼성, SK, 두산, 롯데, 케이티)와 나눔 올스타(KIA, 넥센, NC, LG, 한화)로 나눠 대결을 갖게 된다.

KIA에서는 팬투표와 선수단 투표 결과 나눔 올스타 선발투수 1위 자리를 차지한 양현종과 외야수 김주찬과 함께 감독 추천을 통해 선발된 마무리 윤석민과 포수 이흥구가 축제의 현장을 찾는다.

17일에는 퍼펙트 피쳐, 홈런 레이스 등의 올스타전 사전 행사와 함께 퓨처스 올스타전이 진행된다. 오후 5시부터 시작되

는 퓨처스 올스타전은 입단 5년차(2011년 입단)이하 선수, 타자의 경우 올 시즌 40경기 이상 출장기록이 있는 선수로 출전 명단이 꾸려졌다. KIA에서는 대졸 루키 김명천(투수), '이적생' 노수광·오준혁(이상 외야수), 고졸 루키 황대인(지명타자)이 출전해 미래의 KBO리그 스타를 꿈꾸게 된다.

K리그의 축제는 17일 오후 7시 안산와 스타다움에서 펼쳐진다.

K리그를 대표하는 사령탑 전북 최강희 감독과 '태극전사'들을 지휘하는 슈틸리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팀 최강희'와 '팀 슈틸리케'를 맡아 지역 대결을 펼치게 된다. '차미네이터' 차두리(FC 서울)와 '원반의 달인' 염기훈(수원 삼성)이 각각 '팀 최강희'와 '팀 슈틸리케'의 주장 완장을 차고 별들의 잔치를 이끌게 된다.

광주 FC에서는 '해결사' 김호남이 최강희 감독의 부름을 받고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서재웅, 물당번 박정수에게 "뛰지 마라! 다친다"

덕아웃 특·특

▲"아야 뛰지 마라. 다친다." = 굵아 야 육이아 키우는 막내 투수다. 1996년 생 고졸 루키 박정수는 KIA의 막내다. 당연히 투수주 물당번도 박정수의 몫이다. 장비 챙기느라 물 챙기느라 가장 바쁜 선수, 박정수가 물을 챙기기 위해 덕아웃을 뛰어다니자 하늘 같은 선배 서재웅이 "정수가 뛰지 마라. 그러다 다친다"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어리지만 씩

씩하게 자신의 역할을 하는 막내에 예뻐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 선배들. 팬들의 반응도 선배들에게는 화제다. 이흥구는 "정수 마운드에 올라왔을 때 관망석 함성 들으셨어요?"라며 팬들의 함성 소리를 재연했다.

▲"마운드에 올라가는 게 재미있어요." = 아직은 모든 게 어리둥절한 박정수다. 아이돌 스타급 외모로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을 올리고, 경기장을 아이들 그룹 콘서트장 같은 분위기로 연출하

기도 하는 인기스타. 새로운 생활과 환경이 낯설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한 막내다. 그래도 그는 타고난 투수였다. 박정수는 "이제 1군 생활에 조금 적응이 됐다. 마운드에 올라갈 때가 제일 재미있다"고 환하게 웃었다.

▲"돌아왔습니다." = 더운 날씨에도 심동섭의 표정은 밝지만 했다. 엔트리가 대기 교체됐던 지난 6일 2군으로 내려갔던 심동섭은 딱 10일을 채우고 전반기 마지막 날 1군으로 복귀했다. 계속된 부진 속에 2군에 다녀왔던 터라 훈련이 힘든 줄도 몰랐다. 밝은 표정으로 등장한 심동섭은 "10일 만에 돌아왔다"며 가벼

운 발걸음으로 그라운드로 향했다.

▲"곤니찌와라고 인사를 해야지" = 김중국 주루 코치의 일본어 교실이였다. 16일 훈련에 앞서 덕아웃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던 나카무라 배터리 코치, 김중국 코치가 훈련 보조를 위해 대기하고 있던 진흥중 야구부 학생들에게 "코치님께 인사 드렸나?"고 물었다. 그러자 일제히 일어나서 모자를 벗은 선수들. 김중국 코치는 일본말로 인사를 드려야 한다며 '곤니찌와(일본 오후 인사)'를 알려줬고 학생들과 나카무라 코치는 '곤니찌와'를 외치며 예의를 갖춰 인사를 나눴다. / 김여울기자 wool@

日 프로야구 이대호·오승환 전반기 '만점 활약'

일본프로야구를 누비는 한국인 거포 이대호(33·소프트뱅크 호크스)가 역대 최고 시즌을 향해 달린다. 한신 타이거즈 마무리 오승환(33)은 '살짝' 주춤했지만 센트럴리그 구원 1위 자리를 지키고 전반기를 마감했다. 미국 마이너리그 생활을 마치고 올해 일본 무대에 입성한 이대호는 26·지바 롯데 마린스) 팀의 주축 투수로 자리 잡고 있다.

일본프로야구는 15일 전반기를 마치고 올스타전 휴식기에 돌입했다. 반환점을 돌는 순간, 한국인 선수 중 이대호가 가장 돋보였다. 이대호는 타율 0.331, 19홈런, 60타점을 올리며 전반기를 마쳤다. 타율은 퍼시픽리그 3위, 홈런과 타점은 4위다. 장타율은 0.603으로 2위다. 출루율은 0.410으로 3위에 올랐다. 도루를 제외한 전 부문에서 상위권이다. 전반기 최고 성적을 올린 2013년(타율 0.309, 16홈런, 52타점)보다 모든 부문에서 수치가 상승했다.

일본 진출 첫해인 2014년 센트럴리그 구원왕에 올라 한국 마무리 투수의 위상을 높인 오승환은 올해도 구원왕을 노린다. 오승환은 24세이브(2승 2패)를 올려 야마사키 아사히(23세이브·요코하마DeNA 베이스타스)를 제치고 센트럴리그 구원 선두로 전반기를 마감했다. 지난해 자신의 전반기 세이브 수(22개)보다도 많다.

하지만 세부 성적은 딱 떨어졌다. 지난해 평균자책점 2.00으로 전반기를 끝낸 오승환은 올해 2.91을 기록했다. 6월까지 평균자책점 1.95를 유지하던 오승환은 7월 등판한 6경기 중 4경기에서 실점하는 부진을 보여 평균자책점이 치솟았다. 홈런을 내주는 경기가 늘어난 것도 아쉽다. 지난해 총 5홈런을 내준 오승환은 올해 전반기에서 5홈런을 맞았다. 감독 추천 선수로 올스타전에 나서는 오승환은 축제를 통해 분위기를 바꾸고, 후반기에 다시 구원왕 수성을 노린다. / 연합뉴스

'세계 52위' 정승화, 펜싱세계선수권 銅

한국 펜싱 남자 에페의 정승화(34·부산시청)가 세계선수권 동메달을 따내는 파란을 일으켰다.

정승화는 16일(한국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2014-2015 국제펜싱연맹(FIE)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전에서 최종 3위에 이름을 올렸다. 64강에서 슈테판 라인(독일)을 15-8로 물리치고 8강의 출발을 끊은 정승화는 32강에서 에디손 로드리게스(콜롬비아)를 15-6으로 간단히 제압했다.

16강전 상대 자오원룽(중국)을 15-9로 누른 정승화는 8강에서 올 시즌 FIE 랭킹

2위 엔리코 가로초(이탈리아)마저 15-9로 꺾는 기염을 토했다. 정승화는 기세를 올렸지만, 4강에서 '복병' 게저 임페(헝가리)를 만나 8-15로 패하면서 전진을 멈췄다.

3위를 차지한 정승화는 랭킹 포인트 50점을 획득, 52위에 불과하던 순위를 20위권 안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전망이다.

여자부에서는 최인정(계룡시청)이 16강까지 진출했다. 최인정은 로레다나 디누(루마니아)에게 11-15로 8강에 이르지 못했다. 신아람(계룡시청)은 32강에서 타티야나 쿠드코바(러시아)와 붙어 6-7로 패했다. /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80130-증-2696호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랑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 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전문, 진·통·신·대·교·수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7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진료문의 (062) 227-7575